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3월 25일(금)
...(음력 2월 23일)...
Пятница
25 марта 2022г.
№ 11 (1197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3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날이다. 직업적인 명절이지만 더 크게 보아 이날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축하한다.
사할린주에서 작년 한 해만 문화행사에는 2백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참석했고 문화기관으로는 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수 많은 행사를 펼치고 있다.
▲ 〈사할린 섬〉책 문화예술박물관에서 〈체호브의 길로〉프로젝트 일환으로 펼쳐진 〈도시의 의복〉전시(페르미 향토박물관 소장품)의 한 장면.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러시아, 일본과 평화협정에 대한 회담 중단

러시아 외무부가 일본과 양국 관계에서 일본의 비우호적인 자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러시아의 경제에 타격을 준 일련의 일방적 제재를 시행한 가운데 이에 러시아의 외무부는 "현 조건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비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러시아 국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와 양국 관계에 대한 긴요한 문서 조인 논의가 불가능함을 고려해 평화협정에 따른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어져온 평화협정에 대한 회담은 중단된다.

외무부는 그간 쿠릴열도에 일본 국민의 정기적 무비자 방문도 중단하기로 했다. 2019년에 일본 국민의 무비자 쿠릴열도 방문을 기점으로 팬데믹이 시작돼 사할린주를 방문할 수 없었다. 일본 국민의 쿠릴 무비자 방문은 199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외무부는 "러시아는 남쿠릴 지역에서 공동 경제사업 조율에 대한 일본과 대화를 중지하고, 흑해 경제협력조직의 파트너로서 일본의 지위 연장을 폐지한다. 양국 상호 간의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가 이웃 국가 간의 상호협력 증진 대신 공식적으로 반러 노선의 이익을 선택한 데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배경으로 도쿄 측은 남쿠릴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점령',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다.

학교들, 전국 학력 검정시험 가을로 연기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청과 러시아 정부가 합의한 가운데 2022년 학교들의 학력 검정시험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하기로 했다.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계획됐으며 새로운 시험 일정은 올 9월 5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보건부는 2022년 3월과 4월에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추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로 이 기간이 감염 상황 확산의 적합 시기일 수 있다며 중국에서 코로나 19의 폭발적 재확산과 유럽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로 볼 때 유감스럽게도 팬데믹이 종식되기는 이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 이전 조치들이 계속 적용된다.

전국 학력 검정시험은 가을로 연기돼 컴퓨터상으로(7학년 외국어, 5학년~8학년 역사, 생물, 지리, 사회상식) 진행된다.

2020년 가을 학력 검정시험 과정에 대한 정보는 전 행정자치지역 교육부로 전송될 예정이다.

단신

러시아 국적자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 발급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증면제협정, 교환각서 및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를 2022.04.01.(금) 00:00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25개국에 대하여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가 3월 23일 전했다.

이에 따라, 2022.04.01.(금) 부터 러시아 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해서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K-ETA 신청 접수 시작 일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출장소에서 전했다.

러시아의 복지연금 8.6%로 인상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러시아에서 복지연금 인상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 전례대로라면 봄에 지수 변동이 되지만 2022년에는 연금 지수 계획이 변경되었다.

당초 계획상 7.7% 인상을 계획했으나 관계자들과 논의 후 8.6%로 올랐다.

러시아 연금펀드 사할린 지부는 지난해 인상된 후 복지연금은 5,796.76루블리로 고정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498.52루블리가 추가되어 기본연금은 6,295.28루블리가 된다. 사할린주에서는 특별 지수가 적용돼 사할린 남부와 중심 지역은 1.4%, 오후와 노글리키 1.6%, 쿠릴열도 2.0%가 인상되었으며 복지연금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블라디보스토크-동해 간 한국 국민 특별 수송

주블라디보스토크한국총영사관은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재외국민들을 위해 그간 한·러 정부당국과 동해⇄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운항하고 있는 '이스턴 드림'호의 특별 여객 수송을 협의해 왔으며, 3월 22일 양국 관계 당국으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았다는 정보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 출장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오는 3.30(수) 귀국행 임시 항차(1회)가 운항될 예정이다.

사할린주, 의과대학에 입학할 위한 특별전형 지원서 접수

사할린주는 블라고웨센스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3개 극동 지역의 대학들로 학생들을 보낼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보건부는 특별전형의 입학생 수를 정한 가운데 사할린 지역을 위해 69명을 정했다고 주정부에서 전했다.

최근에 의과대학은 입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의사가 되길 원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학업 준비가 미흡한 까닭에 지난해에는 사할린의 학교 졸업생 45명~50명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이에 주 정부가 관여하여 고학년생들이 대학 입학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문 과목을 심도있게 공부하도록 하는 특성화반을 개설했다.

특별전형의 범위에서 학교 졸업생들은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과 중 한 개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입학생의 거주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입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 매달 장학금 지급, 기숙사 또는 숙소 제공, 3학년~5학년까지 인턴실습지까지의 교통비와 실습기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말했다.

특별전형에 따른 학비는 무료이며, 선발은 국가 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교육기관이 진행한다. 3년간 특별전형에 따라 의과대학에 사할린과 쿠릴의 학생 150여 명이 입학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 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러시아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날 맞아

장애 독자들을 위해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김 예카제리나 수석 정사서

사할린주 일반과학교육에서 최근에 여러 포상을 받은 직원이 '김 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러시아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날을 앞두고 도서관을 찾았다. 알고 보니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통합도서관서비스부의 모바일 도서관서비스센터 수석 정사서 김 예카제리나 알렉산드로브나이다. 한인 1세인 그녀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했고, 아버지도 역시 러시아 여성과 혼인을 했다.

예카제리나의 고향은 사할린주 네벨스구역의 고르노자워드스크 마을이다. 40년 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할린 국립대 문헌학부에 입학하여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다. 대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난 이후로 예카제리나는 고향에 돌아가지는 않았다. 처음엔 기숙 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방을 임대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학생시절에 많은 아르바이트도 하였다. 낮에는 공부해야 하니 주로 밤늦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카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했다. 그런 아르바이트 때문에 사실 대학 졸업장도 못 받았다. 일이 너무 어려워져 차츰 수업을 빠지게 되었고, 5학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대학을 그만두고 졸업장 대신 불완전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 이 증거로는 취업은 가능

했다. 야간 일을 그만두고 싶어한 예카제리나는 바로 주 도서관에 취업 신청서를 넣었는데 도서관에서는 그 당시 적당한 공석이 없어서 한 달 후에 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달 지나 찾아갔더니 예카제리나를 서고 사서로 고용했다.

이렇게 10년 넘게 일했고, 승진도 하고 다른 부서 사서로도 일해보았다. 그러나 돈벌이 될 수 있는 다른 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도서관을 그만두었다. 사실 지인들의 말에 넘어가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바로 후회하게 되었다. 장사, 판매 분야가 그녀의 적성에 안 맞는걸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2년 후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사서가 필요한 통합도서관서비스부의 강순자(엘레나 미하일로브나) 부장이 저를 채용하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위 상관 없이 여성에게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문화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화가 가득 차고 매너 있게 대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곳을 그만두었을 때 도서관이 더더욱 그리웠습니다."라고 예카제리나가 말하였다.



그가 2017년에 도서관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의 삶이 좀 달라졌다 할 수 있다.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승진(거의 1년반 만에 1급 사서부터, 선임 사서, 수석 정사서까지)하여 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진정성을 갖고 일하면서 3년 만에 하바롭스크문화대학 도서관과 잘 졸업했다.

예카제리나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는 운신에 제한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일이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업무다.

"제가 이분들과 매일 접촉하면서 이분들이 저의 소셜 네트워크 '친구'가 될 줄은 몰랐죠. 이분들의 병을 알고, 생활도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고민하는 것은 전에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구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극복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들이라서... 때로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뭔가 고민에 빠질 때나 저를 보고 '무슨 문제 있냐'고 묻는데, 사실 이분들의 삶에 비해 저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걸 금방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들의 진심의 마음이 항상 마음에 와닿아요."라고 예카제리나가 털어놓았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그의 배려와 사랑이 넘친다.

그녀는 5년째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도 창안하고, 여러 프로젝트도 추진해왔다. 업무 중 하나는 물론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직접 못 찾아올 경우 도서관에서 책 주문을 받고 책 배달을 한다. 다행히 이 도서관서비스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차로 책 배달도 하고 장애인들을 도서관에 모시고 온다.

특수차량에는 일반석 8석과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 2석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 한 사람이 9명의 장애인들을 모신다.

도서관이 현재 실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사할린주 75주년 맞아 도시관광 기획이다. 그리고 이미 몇 년에 걸쳐 인기가 있는 기획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야외여행 프로그램이다. 올해 장애인들은

이미 밤부츠키 휴식터, '사할린 얼음'낚시 축제장 등에 가보았다. 이들은 버스에 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익한 강의와 또는 지역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좋아한다. 퀴즈도 인기가 많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문화계몽을 하고 있다. 기획 작성은 주로 수석 정사서 예카제리나가 맡는다.

특수차량은 좌석이 제한되어 여러 단체, 또는 도서관 이용자 그룹이 미리 행사 지원을 해야 한다.

예카제리나는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 협회, 도서관 소속 노인문학애호가 클럽, '전쟁의 아이들'사회단체 회원 등입니다. 특히 주제별 관광행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여름에 바닷가나 호숫가에 갈 수 있는 관광코스가 좋은 나들이로서 장애인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휴식 겸 문화와 문학을 접근하는 이들에게는 사실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운신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용 등에 관한 수업도 한다. 이 수업은 1대 1로 하고 있다. 강사와 수강생. 노인 수강생을 위해 편리한 자리가 마련돼 있고 강사는 80세의 어르신을 위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

고 있다. 때로는 이 수업이 과연 이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아닐 것 같다는 예상, 무엇보다 이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교제가 필요한지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도서관에 하는 업무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걸 보면 예카제리나의 마음도 가벼워진다고 말한다.

그가 실시하는 프로젝트들은 참가자들 중에서만 아니라 직장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에 여러 포상도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다. 사할린주 75주년 기념메달, 사할린주 문화부 표창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감사장을 비롯해 도서관의 표창장이 그의 공로를 잘 증명한다.

지금의 예카제리나는 도서관 일로 만난 사람들 없이 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배신을 못하는 동물을 무척 좋아하며, 3주에 한 번은 꼭 남편과 함께 케이크 2개를 들고 고르노자워드스크 부모님댁을 찾아가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한 지인이 필자가 취재하고 싶다는 대상을 말하자 "이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착하고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필자는 인터뷰 내내 그녀에게서 이 진심이 느껴졌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다자녀의 러시아> 전국 다자녀 가정 포럼 준비

2022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전국 다자녀 가정 포럼이 개최된다.

이 기획의 주최자는 불우환경 속에 있는 아동 지원 기금과 '모스크바 다자녀 가정 연합회' 지역 사회단체가 포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러시아는 건강의 영토'라는 경연이 준비되고 있다. 경연대회의 주목적은 다자녀 가정들 가운데 건강 증진의 진흥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경연에 국립 및 지방 기관, 비영리단체와 사회단체, 상업적 단체 및 상공인 협회의 참여를 권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가정의 전통적 건강 증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우수한 제반시설 구축' 등 4개 부문에서 경연이 진행된다. 참가 캠페인은 4월 말까지 계속되며, 신청서 접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두 번째 단계는 '가족과 자녀가 제일 먼저다' 경연이 진행되는 데 참가신청은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경연 우승자들은 2022년 5월 20일 '건강한 가정 - 강한 러시아' 콘퍼런스 종결 시 발표할 예정이다.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Многодетная Росси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пройдет в Москве с 15 по 16 июня 2022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

екта —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ение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уже начали формировать его программу и приглашать экспертов.

Первым этапом подготовки станет конкурс «Россия — территория здоровья».

Цель конкурса - выявление эффективных практик,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родвижени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ред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созданные ими союзы (ассоциации).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В здоровом теле здоровый дух», «Семейные традиции ЗОЖ», «Спорт для всех» и «Лучш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Заявочная компания продолжится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Сбор заявок начинается 1 марта 2022 года и продлится до 15 апреля.

Вторым этапом станет конкурс «Семья и дети — в приоритете». Заявочная компания пройдет с 1 апреля по 15 мая 2022 года.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ов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во время итоговой конференции «Здоровая семья - сильная Россия» 20 мая 2022 года.

사할린 민속음악 경연 열려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가 음악인들 가운데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민속 음악을 토대로 창작한 지역 창작곡 경연대회 개최를 홍보했다.

이 경연대회는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음악 문화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하며, 대회는 러시아 국민 민속 문화의 해 및 '에나 루(다른 노래)' 민속 기획의 일환으로 열린다. 현재 사할린주 북방 원주민의 현대 민속 음악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의

사업은 사할린주 북방 원주민들의 독창적인 민속 문화를 토대로 현대 음악 작품의 창작을 도울 뿐 아니라 악기를 보완하고, 민속 예술단들의 공연을 재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경연대회 참가는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막론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음악인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 접수는 2022년 10월 1일까지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дут конкурс этномузыки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по созданию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 основе музыкального фольклор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музыкантов.

Конкурс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области и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этнопроекта "Эна лу" ("Другая песня") и Год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егодня существует острая нехватка современной этномузык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ОЦНТ направлена в том числе на содействие созданию современ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 основе самобытного фольклор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ополнение музыкаль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обновление репертуара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музыканты без воз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как любители, та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Прием заявок до 1 октября 2022 года.

2021년 사할린주에서 72장의 위조지폐와 1개 위조 동전 적발

2021년 사할린주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73개의 위조된 러시아 화폐 기호를 적발했다.

(8면에 계속)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50주년 공개방송 '행복한 동행'

가수 설운도, 김국환, 소리꾼 남상일, 박애리 등 출연
사할린동포들의 가족 찾기로 시작해 14,000여 건 가족 찾아...
동포 편지 26만여 건 DB 구축해...

KBS 한민족방송(사회공헌방송부 박천기 부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개시 5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특집 공개방송 "행복한 동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진행자인 이소연과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호섭이 사회를 본 이날 공개방송에는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을 비롯해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사할린아리랑축제추진단 단장인 (주)국악신문 기미양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으로 영주귀국해서 안산, 인천, 김포, 파주, 남양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 그리고 아리랑 명창 이혜술, 중국동포, 고려인, 청취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포들과 인연이 깊은 가수 설운도, 김국환, 나태주, 설하운, 소리꾼 박애리, 남상일 등이 출연해 50주년 축하 무대를 꾸몄다. 사할린에서 위문공연을 펼치기도 한 작곡가이자 가수 이호섭이 "사할린"을 부를 때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한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KBS에 요청해 1972년 4월 3일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의 전신인 "사할린 동포에게"가 만들어졌다. 당시 수많은 사할린동포들이 이 방송을 통해 가족을 찾았으며, 고국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추진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고 박노학 씨의 아들 박창규 씨도 참석했다. 박 씨는 "아버님이 KBS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방송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나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당시 사할린동포들은 한국으로 직접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서 일본을 거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KBS 한민족방송을 듣기 위해 몰래 숨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전 사할린 새고려신문 안춘대 사장과 전 사할린국립대 박승의 교수가 출연해 사할린동포들의 이주사와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로 편지를 보내 가족을 찾은 사연, 그리고 "KBS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사할린동포들이 대거 수상한 얘기 등을 자세히 전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는 1974년부터 방송 권역을 연해주 지역까지 확대해 본격적으로 동포들의 가족 찾기를 실시했다.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가족을 찾아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한중 수교가 되던 해인 1992년까지 중국동포들이 보낸 편지만 해도 26만 여 통에 이르며 KBS 한민족방송은 이 편지를 DB로 구축했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중국동포들의 편지를 분석한 동덕여자대학교 문형진 교수도 출연했다. 문교수는 "이 편지에는 동포들이 한반도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어떻게 이주를 했는지 동포들의 이주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상과 문화도 알 수 있어 그 자체로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편지 내용은 가족을 찾아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KBS 한민족방송에서 가족을 찾아준 중국동포는 14,000여 건에 달한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KBS 한민족방송을 통해 이모를 찾은 중국동포 이승희 씨는 "어머니가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못 찾던 언니를 KBS 한민족방송에 편지를 보내 찾았고, 한국으로 초청되기까지 했다. 우리가 이모를 찾으니가 동네 사람들이 너도나도 KBS로 편지를 보내 많은 중국동포들이 가족을 많이 찾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1984년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염성인 씨의 손자 박동찬 씨도 출연했다.

가족 찾기에서 시작된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통일부와 협력해 올해부터 남북이산가족 찾기를 다시 시작해 동포들의 가족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50주년 특집 공개방송을 본 사할린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 회장은 "KBS 한민족방송



은 사할린동포들이 잃어버린 수많은 가족을 찾아줬고, 또 책과 달력을 보내기도 했으며 노래자랑과 위문공연도 실시했다"며 "KBS 한민족방송은 사할린동포들을 잊지 않고 늘 함께 해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머느리, 손녀와 함께 이날 공개방송을 찾은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공노원 부회장은 "50주년 공개방송은 그야말로 사할린의 날이었다. 머느리와 손녀들이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이 돼 아주 뜻깊었다."고 말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애청자인 재한동포문인협회 김경애 회장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 방송을 들었는데 중국동포들 중에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많고, KBS 덕분에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 또 KBS 한민족방송이 중국동포들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고려인협회 체해진 부회장은 "50년 동안 동포들과 함께 해 오면서 한민족동포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방송을 연출한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김경희 피디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한민족 동포들과 50년을 함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언제나 동포들과 함께 하면서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50주년 특집 공개방송 <행복한 동행>은 4월 2일 토요일, 4월 3일 토요일 AM 7시~8시 KBS 한민족방송(AM 972KHz)에서 방송되며, KBS 한민족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KBS 한민족방송에서 제공)

[신PD의 K 리포트]

역지사지(易地思之)

"저기 MC 자리에 앉아서 여기 PD쪽을 봐. 그리고 어떤 기분인지 말해줘."

후배 PD가 조연출로 배정되면 저는 마치 '통과 의례'처럼 초기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MC는 스튜디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PD가 보내는 다양한 디렉팅 싸인을 살피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경험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보게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십수 년쯤 어떤 유명 가수를 MC로 기용해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지나서 조금 서먹서먹함이 가시게 되자 그 가수 MC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거 아세요? MC석에 앉아서 PD님 디렉팅 싸인만 보는 게 아니라 표정도 봐요. 아니 어쩌면 표정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돼요."

그 가수가 조심스레 꺼낸 이 말을 듣고 작지 않은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디렉팅하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로 표현했을 저의 여러 부정적인 표정들이 그 순간 눈앞으로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후배가 들어오면 이 말을 해주며 MC석에 앉아 PD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음이 느슨해진 것 같을 때에 MC석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PD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방송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PD, 엔지니어처럼 회사 소속 직원들이 있고, 또 작가, 가수, 연기자, 성우, 개그맨 등등 저마다 개성 넘치는 프리랜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성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남과 달라야만 가치가 유지되는' 직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만큼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 가수 MC가 했던 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러 갈등들은 역지사지해보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를 마케팅적으로 확장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더 잘, 더 많이 팔 수 있게 됩니다. 갈등 해소의 도구가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역지사지의 핵심을 마케팅 관점으로 변용하면, '소비자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the customer)'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품이든 서비스이든 만드는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그 경험이 더 최적화되도록 관점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들어가 이들의 눈을 착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돌을 막 지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저는 일부러 웃을 따뜻하게 입지 않았습니니다. 추운 계절에 특히 그렇게 합니다. 아이보다 춥게 입고 있어야 지금 이 온도가 아이에게 어떠한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의사표시 잘못된 것만 아이가 추운지 어떤지 어떻게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아이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또 아는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이분은 정년 퇴직을 하고 식당을 차릴 생각으로 이리저리 시장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던 중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어느 백반집 사장님을 만나서 조언을 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제 지인에게 해준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니다. '혹시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서빙 알바부터 하세요.'

자영업 하는 분들 대부분이 종업원들과의 관계로 힘들어 합니다.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 좋은 위치, 가성비 좋은 신선한 재료, 뛰어난 요리 솜씨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서빙하는 종업원들과의 원활한 관계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장님은 제 지인에게 역지사지를 해보라고 제안하며 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하게 되고, 또 요즘처럼 개인화가 심해지면 사회적 응집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오불관연(吾不關焉)'하듯 살면 갈등도 없을 것 같지만 주변에서 듣고 보고 겪고 계시듯이 모순과 갈등은 그 밑바닥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발휘하는 것,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단하고도 어려운 첫 걸음일 것입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편성기획국장.
shinwonsup@kbs.co.kr)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нформация о выдаче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ля граждан РФ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с 01.04.2022 года 00:00 часов для 25 стран, включая РФ, отменяется приостановка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введенная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С 01.04.2022 года граждане РФ могут въезжать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без визы, оформив 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K-ETA). Но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23.03.2022) дата начала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не определена.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K-ETA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Судоремонтные компании Пусана обеспокоены антироссийскими санкция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удоремонтных компаний крупнейш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рта Пусана серьезно обеспокоены перспективой ухудш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Суда из РФ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и клиентами местных судоремонтников, а потому введенные в отношении РФ санкции неизбежно сильно ударят по самим корейцам.

Напомни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введенным в отношении РФ международным финансовым санкциям после начала Москвой специаль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В ответ Россия включила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список 48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территорий.

Как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Ёнхан", в крупнейшем порту страны Пусане с большим сожалением 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ю восприняли перспективы ухудш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 сих пор российские суда постоянно ремонтировались в Пусане, но возможно, что этому скоро придет конец из-за санкций. Пока главной проблемой являются вопрос перечисления денег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услуги. Ряд ведущих банков РФ были отключены от системы SWIFT,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затруднило расчеты. Теперь как корейцы, так и россияне пытаются найти обходные пути, используя каналы тех банков, которые не попали под санкции.

Однако это половина беды. Еще больш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ызывает возможная перспектива значительного сокращения или вообще полного исчезновения россиян из числа клиентов корейских судоремонтников Пусана. Суда из РФ - главные клиенты, за счет которых живут местные компании.

Согласно имеющимся данным, в районе Пусана действуют около 120 судоремонтных фирм, у которых за год проходят ремонт и прочее 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всего около 1000 судов. Из этой тысячи примерно восемьсот - российские. При этом россияне обычно тратят значительные суммы на ремонт - около одного-двух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а каждое судно (825 тыс - 1 млн 650 тыс долл). Кроме того, вызванный коронавирусом запрет властей Китая на заход в порты КНР зарубежных судов привел к тому, что россияне еще больше устремились в Корею, позволив ме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неплохо зарабатывать, пока не начались санкции.

В итоге "санкционный бумеранг" может довольно сильно ударить по 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и рабочим местам. Большинство фирм могут обанкротитьс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удоремонтная отрасль страны в отличие от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не получает никакой помощи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ытая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живать. Наши компании внесл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и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 цитирует агентство "Ёнхан" сл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я ме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удоремон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им Гви Дона.

Бизнесме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альнейшее ухудшение ситуации нанесет "непоправимый удар по компаниям отрасли", обратившись с просьбой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Пусан, РГ)

В Корсаковской школе № 2 прошел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радициями и нематериальным наследием России, Кореи, Японии, Китая можно было 4 марта в СОШ № 2 г. Корсакова.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и литературы Алла О уверена, что традиционная форма работы с новым подходом - всегда интересно, нескудно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

- Вообще, это наш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 но из года в год мы стараемся удивить и учащихся, и гост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мероприятиям учащиеся максимально погружаются в изучение стран, их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языков, у них складывается цельный образ. Ребенок начинает мыслить шире, - уверена педагог.

Вдохнови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и учащиеся 6 а класса и их родители. Руководство в лице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Лилии Челомбицкой поддержало идею, 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омог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 Уже четыре года я изуч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именн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т мне углуб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применить их на практике,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Это гораздо лучше и глубже обычных уроков. Надеюсь, что данная встреча для кого-то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начать из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 отметила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ца Дарья Шевхужева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Александр, а также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Пак Наталья.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Бен Иль приехать не смог, но передал подарки, теплые пожелания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никами, но и помощниками праздника выступили группы учащихся из Анивы (педагог Анжела Пе) и Холмска (педагог Евгения Ли), которые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насыщенную твор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Приехали и воспитанники Троицк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педагога-организатора Людмилы Фомичевой. Они сразу же погрузились в необычную атмосферу, открыли для себя много нового и обрел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красочна и насыщена, ритм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группы «Минимал»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н Вячеслава задали нужный темп, яркие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сменялись вокальными, а маскарад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осплееров (от японского - «косплей», костюмированная игра) не оставило никого равнодушным.

Особенно яркими номерами ст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имена этих ребят уже многим известны - Кудрявцева Валерия, Томиямо Анна и Цзю Константин из Холмска, Сон Грейс Унэ и Фролова Кристина - Анива, и хозяйева сцены - О Юна, Ким Мия, Пак Юн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е менее интересными для гостей школы оказались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В грим-студии все желающи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символами, рунами, изображениями любимых героев из аниме. Кроме этого, их можно было перенести на какую-то часть тела с помощью краски и кисти.

В фотозоне всех ждал сюрприз. Здесь представили корейские, японские, рус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стюмы. Дети с нескрываемы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зучали каждую деталь, сравнивали их между собой, находили сходства и различия.

А «изюминкой»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чай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анивчанами. Удивительно, но чайная культура объединяет все четыре страны - Китай,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 родиной популярного напитка, Японию, где церемонии обучаются годами, Корею, где встречается невообраз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традиционных и современных чайных домов, Россию, где чаепитие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приятное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е, «разговор по душам». Каждый попробовал настоящий листовый чай класса «Премиум», привезенны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виду, вкусу и запаху он конечно же «выигрывает» у чайных пакетик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полках магазинов, и гости смогли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эту разницу.

Завершилась встреча на сладкой ноте - дегустацией азиатских сладостей, которые понрав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детям, но и взрослым.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пианистка Вилория Шожукпан осталась под приятным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мероприятия.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провести на таком достойном уровне праздник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разных стран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но организаторы справились:

-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ранее я не была знакома. Но ребята сумели с момента открытия приковать взгляд зрителей. Была четко прослеживаемая линия развития - от номера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барабанами до современной эстрады. Качество номеров, костюмы, подача материала и в целом созданная атмосфера, думаю, никого не оставила равнодушным. Также изучение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дает еще одно преимущество - развивает толерантное,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Наталья Ки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ышла в свет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 Чжэ Ина

20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публиковала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Белую книгу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 Чжэ Ина за прошедшие пять лет - «Докла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ун Чжэ Ина народу». В документе изложена хронология и статистика процесса реализации 50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В их число входят всеобъемлющее расширение системы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комплексный проект «Новый курс», нацеленный н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рабочих мест, формирование передовой экономики, борьба с COVID-19 и другие. Упомянуты и меры по преодолению последств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ограничившей поставки в Р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сырья, а также по укреплению системы страхования здоровья. На сайте, где представлена Белая книг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голосовать относительн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той или иной политики. Готовится издание Белой книги в печатном вид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ереместится в здание минобороны

20 марта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о переносе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зд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столич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Ёнсан-гу. Нынешня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и резиденц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Чхонвадэ будет открыта дл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Их перенос входил в перечень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й Юн Сок Ёля. Причину такого решения он объяснил тем, что Чхонвадэ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имперско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системы». Изначально Юн Сок Ёль планировал работать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 районе Кванхва-мун. Однако от этого плана было решено отказаться из-за невозможности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Это также создало бы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насе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его и работающего в данном районе. Выбор был сделан в пользу зд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котором уже налажена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оценке комиссии по передач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переезд в комплекс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обойдётся бюджету в 40 млрд вон (33 млн долларов). Переезд в здание МИД обошёлся бы вдвое дорож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Объединё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должны будут освободить место д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зиден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азместится в одной из существующих официальных резиденций в районе Ханнам-дон, скорее всего, в резиденции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Граждане РК с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из России морским путём

В связи приостановкой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морской путь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родину. Для этого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 паром Eastern Dream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DuWon Shipping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удно отправится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30 марта 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рибудет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Тонхэ.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Ли Сан Су, граждане РК, проживающие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могут прибыт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ым маршрутом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Перед посадкой пассажиры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ить сертификат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результате ПЦР-т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полученный не более чем за 48 часов до отправления.

Писательница и иллюстратор книг Ли Су Чжи получила премию Ганса Христиана Андерсе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и иллюстратор детских книг Ли Су Чжи (Сьюзи Ли) получила престижную премию Ганса Христиана Андерсена (HCAA), которую называют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ей в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овет по книгам для молодежи (IBBY) объявил Ли Су Чжи лауреатом 2022 года в номинации книжных иллюстраций в конкуренции с Беатрис Алеманьей из Италии, Рёдзи Арай из Японии, Ивоной Хмелевской из Польши, Густо из Аргентины и Сидни Смит из Канады. Ли Су Чжи уже была финалисткой конкурса 2016 года, но премию не получила. Премия, названная в честь датского автора сказок XIX века, присуждается с 1956 года за вклад писателей и иллюстраторов в дет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Ли Су Чжи родилась в 1974 году. Она написала и проиллюстрировала ряд детских книг,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Волна» и «Тень», получившие призн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В 2008 и 2010 годах они были признаны газетой New York Times как лучшие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е детские книги. Книгу «Спроси меня», созданную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детским писателем Бернардом Вабером, New York Times включила в список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детских книг 2015 года.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её книга в картинках «Лето»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престиж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емии Bologna Ragazzi Award в номин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22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здравил Ли Су Чжи с получением престижной преми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исал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что она «создала новую историю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х книг, продолжая принимать новые вызовы».

(RKI)

Почему Корея не сможет обойтись без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Сеул)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0)
В 2019-м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точнее, 43,6%) находившихся в Корее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ляли граждане КНР, которых тогда насчитывалось 1,1 млн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среди обладателей китайских паспортов примерно 65% составляют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то есть потомки т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в 1880–1945 годах пересели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Маньчжурии. В массе своей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Китая свободно говорят на языке предков и в целом не очень отличаются от самих корейцев. Тем не мене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КНР подвергаются в Корее ощутим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Местные считают, что их единоплеменники из Китая склонны к преступ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румпированы и вообще служат источнико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облем.

По данным на 2019 год,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сле Китая находился Вьетнам (9,9% все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остранцев), за которым следовали Таиланд, США, Япония и, наконец, Узбекистан,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основном иммигранты заняты в сфе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но при этом на должностях, которые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прямого контакта с клиентами. Без иммигрантов, однако, было бы невозмож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скажем, гостиничной индустрии, равно как и общепита. Множество иммигрантов занят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основном малых объектов). Наконец, значительная их часть работает на небольш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занимаясь там мал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трудом.

Проблемы ассимиляции

Однако, в отличие от, скажем, Австралии или США, 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 и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 Европы, мигран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поселенцы,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пускать корни в новой стран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ублика исходит из того, что иностранец приезжает, чтобы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заниматься «тяжелым, грязным и опасным» делом, заработать деньги и отбыть восвояси.

Так оно обычно и случается. Ассимиляция иностранцев весьма затруднена –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ют, пожалуй, лишь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и некотор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чин тут много, и лишь часть из них носит формально-юрид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например, в Корее непросто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на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целому ряду критериев (включая, в частности, и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которые недостижимы для рядового гастарбайтера.

Дети мигрантов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немал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 школе, часто подвергаются травле. Впрочем, даже если отношения с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складываются хорошо, им непросто освоить корейскую шк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рей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в учебе постоянно помогают родители, а также весьма развитая (и часто дорогостоящая) система курсов и репетиторов. Большинство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не только не в состоянии помочь своим детям в выполнении домашних заданий,

но и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как и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хорошего репетитора, и, главное, часто не в состоянии оплачивать его услуги. Учитывая, какую роль играет получ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облемы с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вуз означают, чт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детей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обречены оставаться на нижних этажах социальной лестницы. Поэтому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родители даже и не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их дети по достижении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рее, – некоторым исключением тут являются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пасть в вузы по квотам.

В общем,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большинству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ытной и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но не дает им и их детям никаких социальных перспектив. Мало кто из мигрантов хочет остаться в Корее навсегда, но и домой многие из них совсем не торопятся – не редкость встретить гастарбайтера, «временно» живущего и работающего в Корее уже лет десять или пятнадца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даже возникли городские кварталы, в которых иностранцы составляют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Чаще всего такие анклавные районы располагаются поблизости от тех промышленных районов, в которых гастарбайтеры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ют заметную часть работников.

Обойтись без иммигрантов не получится

Несмотря на нежел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серьез говорить об иммигранта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татистика неумолима. Без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евозможно поддержание т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к которому корейцы привыкли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Вдобавок стремительное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в сочетани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малодетности означает, что вскоре в стране появится множество стариков,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стоянных заботе и уходе.

При эт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прос об иммиграции не стал политическим.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и корейские правые, и корейские левые элиты понимают: без иммигрантов не обойтись. Это единодушие элит влияет и на то, ка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опросы освещаются в СМИ: в целом об иммигрантах в печати говорят с симпатией, а к проблемам, которые порождает иммиграция, стараются привлечь поменьше внимания.

Вдобавок кажется, что молодежь к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относится иначе, чем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последние 10–15 лет заметно, что этниче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крови и почвы», десятилетиями бывший важной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начинает ослабевать, а на смену ему во многом приходит граждан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Для молодежи житель КНДР все чаще не кажется соплеменником, зато выросший в Южной Корее сын вьетнамской крестьянки начинает казаться своим. В общем, перемены идут, хотя и очень медленно. Через полвека, скорее всего, Южная Корея перестанет быть страной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ой, нравится это большинству ныне живущих корейцев или нет.

(Источник: журнал Профиль, март 2022 г.)

Самый длинный в мире подвесной мост построен п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18 марта в Турции был открыт самый длинный в мире подвесной мост «Чанаккале 1915». Он переброшен через пролив Дарданеллы, соединив азиатскую и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и страны. Мост построен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 DLE&C и SK Ecoplant (DL이앤씨,SK에코 플랜트). Д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автомобили, курсировавшие между регионом Анатолия и полуостровом Галлиполи, пересекать Дарданеллы на пароме, что занимал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Мост позволяет преодолеть то же расстояние за 6 минут. Кроме того, новый мост сократит путь от границы с Грецией и Болгарией до регионов Турции минимум на 200-300 километров.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объекта учтены местны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Нормальн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моста без перекрытия движения возможна даже при скорости ветра 91 метр в секунд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ста заняло 4 года, в нём участвовали 17 тыс. человек. Общая длина моста 3.563 метра, а длина основного пролёта - 2.023 метра. Считалось, что построить пролёт длиннее 2 тыс. метров техн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До сих пор рекорд принадлежал японскому мосту «Акаси-Кайе», построенному в 1998 году. Длина его основного пролёта составляет 1.991 мет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мост «Чанаккале 1915» в течение 12 лет.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мост стал очеред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высок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их инженеров. В 2013 году компания DLE&C (DL이앤씨) построила самый длинный подвесной мост в РК,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четвёртым по длине в мире.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ьготн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будет доступен российским и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а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рассказал журналистам, что будет лично общать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будущ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островах.

– Мы ждем тех инвесторов, которые хотят работать с Россией. Мы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инвесторов. Мы приглашаем инвесторов из России. Мы приглашаем инвесторов из Китая. Мы приглашаем инвесторов из Японии. Я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эт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состоится, – подчеркнул Юрий Трутнев.

9 марта 2022 года вступил в силу новый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для компаний, реализующих проекты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которым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о вторую часть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Ф, под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числе преференций –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 20 лет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организаций, налога на имуще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й, транспортного налога, земельного налога; пониженный тариф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в совокупном размере 7,6% на 20 лет; примен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бладают больши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На этих уникальных для страны территориях необходимо заниматься развитием рыб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энергетики, туризма, логистики и транспорта. У нас все для этого есть.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а уже успешно идет, создана хорошо отлаженная система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бизнесом. Наши двери открыты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из любой страны, и с каждым из них мы готовы работать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нуление налогов на Курилах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оров в 2019 году предлагал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возглавлявший тогда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теперь сообщает о местах и времени продажи рыбы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би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правляе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с помощью push-уведомлений.

–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любое моби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Android и iOS. Для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авторизоваться.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 выбрать свой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Уведомления о реализации рыбы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Ранее расширить функционал приложения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не только вести работу по увелич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точек, где торгуют рыбой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но и систем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Жители должны знать, где и когда проводится такая торговля, – отмет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Напомним,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разработа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его помощью можно получать новости сво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узнавать о льготах 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формацией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дома, оставлять отзыв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Привязав к приложени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новых партнерах проекта,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озыгрышах, отслеживать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в магазинах.

На Сахалине приступили к проведению конкурсных процедур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ервы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заключ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омар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Еще четыре района разместили аукционы для поиска подрядчика: Анив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и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ы.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линии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дворов всем субъект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ыделено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произведено исходя из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его насел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едусмотрели 418 миллионов.

Ускорить работу по проведению конкурсных процедур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е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ах должны быть завершены еще до окончания теплого сезона. Люди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бновленными дворами, оценить их.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ажно, чтоб и все конкурсные процедуры происходи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без затягивания сроков и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й волокиты.

– Мы многое делаем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 важ-

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этой работы.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ы намерены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а островах около 8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 этом не менее 60 мы сможем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направленных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ая поддержк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завершаются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во дворах которых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ам, где уже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эскизного проекта,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онкурс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До 1 апреля все районы должны разместить аукционы.

–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Для этого в регионе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уются дома, приводятся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дворы.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у нас появля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Дворы, в которых выполняю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ыбрали сами жители.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67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еречень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ошли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жители которых согласны обеспечить их содержание. Адресный перечень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в разде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екретар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напомнил,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свое время стал флагманом проекта комплекс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в стране.

– В 2008 году наше отделение партии предложило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Наш двор», который в 2015 году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лся в феде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проект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Так что мы и раньше уделя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дворов, работы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ли ежегодно. Мои коллеги по партии и я сам лично контролировали процесс: встречались с жителями, обсуждали планы, пожелания – где провести тропинку, где поставить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где скамейки, и так далее. Нужно обязательно людей слыш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 мнению Андрея Хапочкина, –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ваться на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Еще во время подготовки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обсуждать все этапы предстоящего капремонт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огда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а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дворы, полность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х пожеланиям и ожиданиям.

Программ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вор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ах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ице-премьера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Реш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VI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ЭФ) в 2021 году.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обновление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 применен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здание пространств для отдыха и развития рядом с домом, повышение индекса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жителей создаются площадки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игр и спорта, обустраиваются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и велодорожки, производится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 программе «1000 дворов»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В центре «Преодоление» открывается отделение для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функций мозга

С такой просьбой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ись родители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и поручил развернуть отделение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ло 600 семей, где дети нуждаются в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е головного мозга. Один аппарат есть в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на нем проводится 300 исследований ежемесячно. Н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Мы покупаем еще три аппарата –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и психиатр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сем нуждающимся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должна быть доступ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помощь и реабилитаци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еодолени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отдельный блок для первого этапа диагностики с медицинскими кабинетами, палатами, душевыми. Здесь установят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лектроэнцефалограммы. Чувствительный метод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зволяет отслеживать малейшие изменения функций коры головного мозга и глубоких мозговых структур во временном измерении.

– Эта процедура очень нужна деткам нашей области. Раньше нужно был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год летать в Хабаровск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Хорошо, что сейчас будем обследоваться дома.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к нашей проблеме, – поделилась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Гаврилова.

Аппарат ЭЭГ должны установить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штат устроен педагог-дефектолог, скоро появятся также врачи – невролог и психиатр.

–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не работает с системой

БАРС. Н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ам было удобно записываться в новое отделение, мы предусмотрим такой форма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 людей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исывать детей на диагностику через еди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Для пациентов из районов будет решен вопрос с проживанием. После процедуры здесь же, в «Преодоление»,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ройти реабилитацию,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Губернатор накануне посетил «Преодоление», встретился с мамами, педагогами и врачами. Депутаты от фракц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оказа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этому проекту, чтобы родители знали, как их де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куда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дители, а также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и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сения Огаркова.

Напомним,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переехал в новое просторное здание в 2018 году. Здесь ежедневно проходят реабилитацию до 150 ребят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рием уже ведут профильные врачи – ортопед, невролог, педиатр, а также психологи, логопеды и социальные педагоги. В центре установлено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комплексн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детей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ребят из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открыт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стационар.

На Сахалине нарастят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расширят ассортимент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 выпускать новые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и витаминизированные напитки, безалкогольное пиво, натуральный чай и морсы. Увеличат производство кваса. Запуск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линий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16 мар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сахалин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пообщался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компании.

– Важн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ли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и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приобретать привычные для себя продукты. Если цены на импортные товары всегда будут колебаться вслед за курсом валют, то товары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а тем более сделанные из собственного сырья, не зависят от мировой конъюнктуры. Поэтому продолжаем расшир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наши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К примеру, местные напитки, которые и раньше пользовались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у наших жителей, смогут прийти на смену импортным.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могать предприятию в этой важной работ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с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мощно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уже доставлено на остров. Сейчас идет монтаж техники. В список нов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войдут чай с сахалинскими травами и ягодами, минеральная вода с натуральными добавками. Увеличим вд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кваса и начне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дукцию в алюминиевых банках,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Виктор Левандовский.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цеха и установке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разверну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объекте идет монтаж двух баночных линий и ново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линии розлива воды и напитков. Уже в ма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чн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безалкогольного пива, а также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и витаминизированных напитков.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в ассортименте компании появятся натуральный чай и морсы. Продукцию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авлять в том числе в крупнейши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егодня компания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выпускает более 30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ции. В их числе – сиропы из дикорастущих ягод брусники, красники и клюквы.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дукции пред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т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с 2018 года компани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озместили затраты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транспорт в размере 165,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более 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правили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ривле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ейчас эти расходы позволят созд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а также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прохладительных напитках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Напомним, вопро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овощами.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стных агропредприятий и фермеров составляют овощ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прежде всего, томаты и огурц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ласть обеспечивает ими себя на 65 процент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области наращивают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 мяса, молока, яиц. Например,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в 2021 году произвела 3,8 тысячи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 2022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извести 4 тысячи тонн, а в 2023 – 6 тысяч тон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а потребность регио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яиц увеличат до 130 миллионов штук, также закрыв потребност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에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다> 경연대회의 우승자 발표

3월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다> 경연대회 사할린 지역 단계의 폐막식이 거행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에서 두 번째로 열린 가운데 밝고 축제적 분위기 속에 성대히 치러졌다.

지역 단계의 경연 결과 수상 부문과 수상자는 '기술 방면 보충교육 교사'부문에서 올라 그워즈체츠키야(유즈노사할린스크) 교사가 수상, '미술 방면'에서 키릴 보리센코브(오하) 교사, '사회 및 인문 방면'에서 박경숙(돌린스크) 교사, '전문적 입문'부문에 알렉산드르 워론코브(코르사코브) 교사가 수상했다.

그중 최우수상은 유즈노사할린스크 3호 김나지아의 '관토리움' 아동 테크노파크 교사인 나탈리아 포일로와가 수상했다. 이후 나탈리아 교사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다> 전 러시아 본선 경연에 사할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나탈리아 교사는 "경연은 어렵고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히며 "경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훈련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모든 교사들이 이 경연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정말 이 경연대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테와가 우승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대

규모 경연대회 주최에 협력한 협력자들과 전문가들에게 교육부 감사장을 수여했다.

주 학교 밖 보충교육 활동센터의 감사장은 예카테리나 스트렐니코와 센터장이 경연 주최자들에게 전달했다.

폐막식이 아동 예술단들의 공연으로 장식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의 '비틀림' 한국 타악기 앙상블(지도 신 율리아), '로드니축' 돌린스크 아동 예술학교(지도 나탈리아 스테파노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2호 아동 예술학교의 '아크와렐' 가무앙상블(지도 나탈리아 크로니나, 타치야나 칼라이탄)이 무대에 나섰다.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아요> 보충교육 교사들의 경연은 몇 개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지역 단계 결선 경연에는 1차 원격 경연에서 선발된 유즈노사할린스크, 오하, 아니와, 돌린스크, 흠스크, 쿠릴스크, 토마리, 코르사코브 지역 17명의 교사들이 직접 참가하였다. 경연을 통해 이 중 6명의 최종 우승자들이 선정되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할린주 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아요> 지역 단계 경연의 주최에 주 교육부, 학교 밖 보충교육센터, 교육품질 평가센터가 나섰고, 주 문화·고문서사업부가 사회적 협력을 했다.

재외동포재단, 울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과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공동주관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은 20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공동주관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을 위해 3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 매일경제신문 김대영 부국장, 김점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등이 참석한다.

3개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네트워크 ▲세계한상대회 및 한상 브랜드 홍보 등 공동 협력 사항 및 기관별 책임 역할을 정하고,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20년을 맞는 한상의 가치와 발전하는 한상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금년도 울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가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20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3년에는 처음으로 해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제공)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е Восток открыли новую амбулатор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ункта велось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амбулатории, рассчитанной на 5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жители села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уже в новых,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Всего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1800 человек.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первич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им оказывали в старом,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для этих целей помещении. Для сельян уже стали родными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Надежда Насыр и педиатр Марина Евдокимова. Обе женщины работают в медпункте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и сейчас с большой радостью обживаются в новых помещениях.

— И за первой помощью обращаются, и н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Амбулатория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место притяжения, и по здоровью решить вопросы, и пообщаться. В новом здании все эти процессы проходят легче, приятнее, мотивирует лишний раз прийти давление проверить,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лечение, — отметила врач-терапевт Надежда Насыр.

Современная амбулатория построена по типовому проекту, в н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медици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мещения: процедурный, прививочный кабинеты, отдельные кабинеты для приема педиатра, терапевта, стоматолога, аптечный пункт, регистратура, 2 санузла (один —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расширена за счет выездной работы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ронайской ЦРБ. По графику в амбулаторию приезжают окулист, хирург, кардиолог, гинеколог и другие врачи, в том числе работает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анней диагнос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углублен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в районный центр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Отметим,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малые села, открылись более 20 новых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Например, в 2021-ом новую амбулаторию сдали в Ильинском.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будут сда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е пункты и амбулатории в селах Чапа-

ево, Первомайск, Ныш, Покровка, Поречье и Вал.

В текущем году твердое покрытие появится на 57-километровом участке авто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я Белика с населением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йонном дворце культуры.

Перед началом встречи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ручил группе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памятные знаки «75 л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амоты лауреатам и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охинцы получили ответы н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Они касались, в частности,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нового жилья, торговли, спорта 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ремонта дорожной сети в городе.

—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принят ряд решений, касающихся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сферы райо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профинансирует обустройство фасада на здани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Охе. Будет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яться капитальному и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одну школу в Охе.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еще дв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хинцы подняли также вопрос об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и автодороги, соединяющей юг и север Сахалина.

— Эта магистраль находится в федер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финансируется из бюджета страны.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грунтовый участок в 194 километра будет ликвидирован.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оявится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на отрезк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7 километров. План 2023 года - 86 километров. Останется в 2024 году уложить твердое покрытие на участке в 51 километр, — сообщил собравшимся Эдуард Р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озложил цветы к памятнику лётчикам 583-го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ордена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полка 146-й истребитель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Хинганской дивизии, погибшим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한국 외교부, 러시아 교민·유학생 위한 신속해외 송금제도 확대 운영

러시아 주재 5개 공관 통해 이용 가능신청한도 현행 3천불에서 8천불로 증액 수령까지 2~3일 소요

외교부는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월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 5곳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5개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청 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되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해,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 수령 시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8 семей из сел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тметили новоселье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в новостройке в Стародубском получили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редства на возведение дома были выделены в рамк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вартиры сданы «под ключ»: в помещениях выполнен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установлены окна, двери, сантехника и электроприборы. Новоселам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перевезти свою мебель. Некоторые уже сегодня занялись вопросом переезда.

— Вы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ак я счастлива! Когда я узнала, что перееду с сыном в этот дом, я расплакалась. Дом потрясающий — такие большие квартиры, хорошие подъезды, я в полном восторге. Мы начнем перевозить вещи сегодня же, уже не терпится обустроить квартиру,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тародубского Надежда.

Новоселов поздравил мэр До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 районе появится больше современных новостроек. В Стародубском начали возводить два жилых дома — сюда переедут 100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сдадут 60 квартир, остальные 40 — в 2023-ем. С вводом новостроек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решен вопрос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тародубском.

Кроме того, сформированы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для будущ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улицах Набережная и Дзержинского.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ередало в муницип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участок на улице Лобанова площадью 95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здесь мы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комплексная застройка.

Отмет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активное расселение жител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и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региона. В 2020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расселила дома, признанные непригодными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Ликвидац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запущена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расселению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3,9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должн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5,7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сего по программе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переедут почти 3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욱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i>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i>